

News

관망하는 금리 노마드족 노린다...인터넷銀 파킹통장 경쟁

아시아경제

토스뱅크, 오늘부터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연 4% 금리 혜택 제공... 5,000만원 이하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연 2.3% 이자 제공 예정
케이뱅크, 12일 파킹통장 금리 연 3.0%로 0.3%p 인상... 다만 카카오뱅크는 아직 파킹통장 금리 인상 계획 없어... 현재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 연 2.6%

카뱅 앱에서 주식 매매를... 카뱅, 한투증권과 제휴서비스 출시

서울경제

카카오뱅크, 한국투자증권과 협업해 앱 내 국내주식 투자 제휴 서비스 시작...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
그간 증권사의 주식 계좌 개설만 지원... 주식 투자시 부족 금액을 자동 계산해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간단하게 이체하는 기능도 탑재

CP금리 올해 들어 첫 하락...국채 금리는 혼조세

연합뉴스

CP91일물 금리, 12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bp 떨어진 연 5.53%로 집계... 연초 연 1.55%로 시작한 CP금리는 그간 줄곧 상승세 이어와...
잇단 시장 안정화 방안의 정책효과와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 3년물은 3.4bp 내린 연 3.623%, 10년물은 4.3bp 내린 3.448% 기록

“더이상 혜택 못준다”...카드사, 해자카드 발급 줄줄이 중단

이데일리

KB국민카드, 'KB국민 탄탄대로 오토카드'의 단종 수순에 들어가... 22일부터 신규, 추가, 교체 발급 중단하기로...
우리카드, 12일부터 카드의 정석 체크카드 3종 신규,추가,교체 발급 중단... 가맹점 수수료 지속 인하로 영업환경 악화 영향...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며 부수업무 마진 어려워...

생보사, 방카슈랑스 '자금쏠림' 가속... 9월에만 2.5조 몰려

이코노믹리뷰

23개 생보사들, 올해 9월까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 총 7조 2,378억구인으로 전년동기대비 54.7% 증가
7월까지의 전년 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8월에만 1조 3,291억원 거둬들이며 반등 성공...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동양생명으로 9월만 9,070억원 수취

MG손보·KDB생보 M&A 시장 매물로...시장은 손보사 매력도 더 높게 봐

CEO스코어데일리

MG손보, ABL생보, KDB생보 등 최근 M&A 시장에 보험사들이 잇따라 매물로 등장... 손해를 개선세인 손보사보다 금리 인상과 회계제도 변경 관련 등이 생보사 매력 낮춰...
ABL생보의 경우, 아직 매각건이 공식화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매각 예상가로 약 3,000억~4,000억원 수준 예상... 비우호적 사업환경에 과도한 경쟁은 어려울 것

한은, RP 1.5조 추가 매입...“증권사 유동성 공급 지속”

파이낸셜투데이

한국은행, 자금난 겪는 증권사 지원 위해 1조 5,300억원 규모 RP 추가 매입... 평균 3.58% 금리로 매입... 예정 금액인 3조원 중 1조 5,300억원만 낙찰
이번이 지난달 21일과 이번달 5일에 이어 세번째 매입...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 단기금융시장 안정 위해 RP 매입을 6조원 정도 예상했으나 필요시 연말까지 확대 가능 언급

'시한폭탄' 우발채무 여전...증권사 리스크 관리 '심판대'

비즈니스위치

증권사들, 3분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2분기 대비 2%p 낮아져... 다만 1년전과 비교하면 5.2%p 높아...
전체 규모는 약 45조 1,210억원으로 집계... 부동산 외에도 인수금융이나 기업금융 관련 우발채무 포함 고려시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확 줄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